**2017년 제 3 회 융합철학워크숍 작품보고서**

* 조 이름: 곰 발자국
* 조원 철학과: 김 주환 32157135 (조장), 박 민경 32161596, 정 봉주 32164113 심 윤희 32172355, 이 준수 32173442 도예과: 김 채현 32171136, 이 희진 32173665
* 작품 이름: 이해라는 이름의 오해
* 작품 설명

우리는 곰에 대해 알고 싶기에 말을 걸어보려고 노력했다. 그러나 우리는 곰과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, 서로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. 우리는 곰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곰이 남긴 흔적과 행동을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고안해낸 것들을 통해서 곰을 해석하고 추측하는 수 밖에 없었다. 즉, 우리는 우리들 만의 범주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 곰을 이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. 곰이 먹다 버린 동물사체를 보고 곰이 육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, 곰이 나무에 자신의 발톱자국을 내면서 영역표시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그 예이다.

하지만 우리가 흔적을 통해 알게 된 곰을 온전히 ‘진짜 곰’이라고 볼 수 있을까? 우리가 알고 있는 곰의 모습은 온전한 ‘진짜 곰’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매개체로 바라본 곰이라고 말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.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만의 범주를 통해 곰을 보기 때문이다. 어쩌면 ‘진짜’ 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. 어느 곰은 나무에 발톱자국을 내며 어서 들어오라는 환영을 표시를 하는 것일 수 있다.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며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. 곰의 발톱과 이빨을 보고 곰을 무자비한 포식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곰은 억울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.

우리가 곰을 이해하기위해 취하는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자에 대해 이해할 때 취하는 방식이다. 따라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기에 앞서 자기만의 범주에 맞춰 스스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자제하려는 태도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한다.